

전략수립과 연성운용연구 : 동향 및 적용가능성

김도현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국 문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운용 연구 분야에서 최근 20 여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연성운용연구(Soft OR)가 경영전략수립방법론으로서 활용 가능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본 논문은 우선 연성운용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의사결정자들의 인식변화 혹은 사고들의 전환이 전략형성의 과정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서술적(Descriptive)학파의 이해와 대단히 유사하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였다. 특히 이들 가운데에서도 전략형성과정에서 최근 중요한 연구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소위 인지학파(Cognitive School)의 주안점과 연성운용연구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실질적으로 전략수립의 과정에서 연성운용연구를 활용하기 위하여 연성운용연구의 방법론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가운데 특히 SODA(Strategic Option Development Analysis)가 전략수립방법론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연성운용연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석론 적 특징은 전략 연구문헌에 있어 주류접근방법인 실증적 접근방법과 분명한 인식론적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자 한다.

핵심주제어: 전략형성, 인지적 접근, 연성운용연구, 인식론

*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drkim@kookmin.ac.kr

본 연구는 2006년도 국민대학교 신입교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1. 서론

1.1 전략형성과 인지학파

기업의 전략형성(Strategy Formation)을 이해하는 현재의 주도적 접근방법은 해당기업을 둘러싼 외부의 산업 및 경쟁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포지셔닝을 전환하고자 하는 이른바 포지셔닝학과(Positioning School)의 그것이다. (Grant, 2005). 그러나 Mintzberg(1994)가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주도적 접근방법은 다양한 전략분야의 연구 흐름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포지셔닝 학파와 더불어 설계학과(Design School) 및 계획학과(Planning School)이 전략형성의 내용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전략을 수립(Formulation)하는데 보다 주안점을 맞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처방적인(Prescriptive) 접근방법으로 이해된다면, 전략적 의사결정자들의 정치적인 갈등, 기업내부의 조직문화, 학습능력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되는 전략형성의 과정을 함께 강조하여야 한다고 하는 연구자들은 전략형성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서술적(Descriptive) 접근방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Mintzberg, 1994; Eden and Ackermann, 1998).

그러나 이 같은 서술적 연구들이 실제 경영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처방적인 접근방법이 매우 전형적인 전략수립도구-예컨대 BCG Matrix나 SWOT과 같이 놀랍도록 단순화된-를 제공하고 있는데 비해, 이들 서술적 접근방법의 결과는 전략형성의 과정을 이처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명쾌한 전략수립도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적 접근방법에 기반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현재의 주류 접근방법이 가진 일정한 한계가 분명히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의 주류 접근방법의 가장 큰 한계 가운데 하나는, 전략의 수립 및 전략적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인간의 이성이 완벽할 수 없다는 데 있다(Mintzberg, 1994; Helalcleos, 2003; Eden and Ackermann, 1998). 흔히 전략수립과정에서 정보의 부족이나 주변 환경의 불확실성은 늘 제기되는 문제이나, 인간의 이성 그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Simon(1992a, 1992b)이 제기한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의 개념이 경제학에서 경제주체들의 행태에 주목하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을 낳은 바 있듯이, 경영학 분야에 있어서도 기업의 전략수립 및 전략적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자들의 제한된 합리성과 의사결정자들의 정치역학 및 권력관계로 인해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Eisenhardt and Zbaraki, 1992; Schwenk, 1995)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성공적인 전략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둘러싼 주변 환경 요인들에 대한 정보의 확보 및 분석뿐 아니라, 의사결정자들의 제한된 이성을 확장하고 의사결정자들 간에 형성된 권력관계를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게 된다. 즉, 전략의 수립된 내용뿐만 아니라 전략의 형성과정도 대등한 중요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Mintzberg, 1994; Eden and Ackermann, 1998; Hodgkinson and Sparrow, 2002).

이 가운데 전략형성과정에서 의사결정자들의 권력관계를 다룬 주로 다루는 연구자들은 정치학과라고 불리며 주로 정치학 및 행정학의 연구 성과에 의존하고 있는데 비해, 의사결정자들의 제한된 합리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주로 인지심리학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인지학과¹⁾(cognitive school)로 통칭되기도 한다. 전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업 내 전략가들이 내 외부 환경을 인지하는 수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들 연구자들의 이론을 따르면, 결국 정확한 전략의 수립과정은 이들의 인지체계-흔히 인지지도로 통칭되는-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인지학과는 전략의 수립을 위해 전략가들의 인지지도로 변화시키는 특정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Mintzberg(1998)는 사회 인지심리학이 아직 충분히 도구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소비자"로서의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실증적인 연구사례의 부족도 한 이유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성운용연구

1970년대 후반 이후 유럽, 특히 영국의 운용연구 계에서는 기존의 운용연구에 대한 강력한 회의론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회의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초기 영국과 미국의 운용연구를 선도했던 선구자들인 Ackoff 나 Churchman과 같은 학자들이 운용연구를 사회적인 문제를 비롯한 인간 활동영역 전반으로 확장하고자 시도했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Ackoff, 1979; Pidd, 2004a). 이러한 열망이 좌절되고, 운용연구가 차츰 수학적인 문제풀이(이른바 '강성 hard' 운용연구)로 자리잡아가자 이들 운용연구의 창시자들은 오히려 이런 '강성(hard)'의 접근방법이 실제로 경영활동에서 부딪히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경

1) 경영학에서 제한된 합리성의 개념을 받아들인 학파를 행동학과(behavioural school)이라고 부르지 않고, 인지학과(cognitive school)라고 부르는 것은 심리학의 연구중심이 20세기 중반 Chomsky등의 영향을 통해 행동심리학에서 인지심리학으로 전환된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동경제학이 아직 주체(agent)들의 사고구조보다는 그 결과로서의 행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지경제학의 등장가능성을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와 회의를 제기하기에 이르고 마침내 "운용연구의 미래는 이미 죽었다"는 과감한 선언을 서슴치 않게 한다(Ackoff, 1979).

이 같은 회의론에 부응하여 등장한 것이 바로 이른바 연성운용연구(soft OR) 혹은 문제구조화방법론(Problem Structuring Method)라고 불리는 일군의 방법론들이다(Rosenhead and Mingers, 2001; Jackson, 2000; Pidd, 2004b).

강성운용연구가 명백한 목표를 지닌 단일 의사결정자의 최적화과정을 가정하고 모델링 및 문제풀이과정을 수행하는데 비해, 연성운용연구는 조직 내에는 다양한 의사결정자가 존재하며, 이들의 목적은 분명하지 않고, 더 나아가 문제자체가 정의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들 방법론은 의사결정자들이 서로의 권력관계와 세계관에 따라 다양한 협상 및 갈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사결정에 도달하게 된다고 본다(Rosenhead and Mingers, 2001; Pidd, 2004a).

연성운용연구는 그룹단위의 의사결정지원방법론을 지향한다. 이들 방법론이 문제구조화방법론이라고도 지칭되는 이유는, 의사결정참여자들의 상황인식에 지속적으로 도전하여, 이들이 자신들이 처해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문제의 구조(structure)에 대한 합의와 문제의 해결에 대한 열의(commitment)를 확보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서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을 공유한 방법론들은 1970년대 말 이래로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는데, Rosenhead와 Mingers(2001)는 그 가운데 주요한 5개의 문제 구조화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Eden(1992a, 1992b, 1998) 등에 의해 개발된 전략개발 및 대안분석(SODA: Strategic Development Option and Analysis), Checkland(2001) 등의 연성체계방법론(SSM: Soft Systems Methodology), Friend(1997) 등의 전략선택접근법(SCA: Strategic Choice Approach), Rosenhead(2001) 등의 강인분석(RA: Robustness Analysis) 그리고 최근 개발된 드라마이론(Howard et al., 1993; Howard, 1999).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Mason과 Mitroff(1981)의 전략가정 탐색실험(SAST: Strategic Assumptions Surfacing and Testing), Ulrich(1983) 등의 비판시스템이론, Beer(1985) 등의 지속시스템모델(VSM: Viable Systems Model), 시나리오기반 계획법, 그리고 잘 알려진 시스템 다이내믹스²⁾ 까지를 연성운용연구 혹은 문제구조화방법론의 범위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 연성운용연구이론이 앞서 제기된 인지학파의 입장에 따른 전략형성의 도구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2)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강성'운용연구인지 '연성'운용연구인지 하는 논란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한 핵심적인 논의는 Lane과 Coyle등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Sterman(2000), Lane(1999), Coyle(2000)등이 대표적이다.

II. 경영 인지변화 도구로서의 연성운용연구

인지학과의 접근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은 인간은 일정한 정보처리 기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정보처리구조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완전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제한된다고 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이 같은 연구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이 같은 정보처리구조를 지칭하는 용어는 대단히 다양하지만(Walsh, 1995; Hodgkinson and Sparrow, 2002) 스키마(Schema), 인지지도(cognitive map) 그리고 정신모델(mental model)이라는 용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Hodgkinson 등(2002)은 이 3가지 용어를 완전히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스키마는 일반적으로 반드시 인과관계를 상정하지 않은 상위 사고구조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에서(Mintzberg, 1998) 본 논문에서는 인지지도와 정신모델의 두 가지 용어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인지지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인지지도라는 용어는 쥐의 실험과정에서 쥐가 위치를 인지하는 나뭇의 지도, 즉 '쥐가 인지한 지도'라는 의미로 최초로 사용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와 같은 의미보다는 Axelrod(1976)가 정치인들의 사고를 분석한 사례에서 사용한 바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인지체계를 투사한 지도라는 의미로 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개인의 인지심리를 파악하기 위한 단위로 이해되던 인지지도에 대한 연구가 기업조직의 내외부 상황인식을 파악하는 경영진들의 인지지도에 대한 연구까지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자로 Weick(1990,1995)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사회구성주의의 입장에서 전략이란 실제 그 자체의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식된 상황(perceived reality)을 통해서 수립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해 오고 있다. 사실 이 같은 입장은 심리학에서 이미 1950년대에 이루어진 Kelly(1955)의 구성주의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소개된 바 있듯이 인지학과의 연구결과를 따르면, 결국 한 기업의 전략형성은 경영자, 혹은 주요 의사결정자들의 인지지도에 따라 좌우되며 따라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요경영자들의 인지지도가 내 외부 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변화되어야 한다. 이에 실패할 경우 기업은 상황에 부적합한, 경우에 따라 매우 어리석은 전략을 형성하게 되기도 한다(Fahey and Narayanan, 1989). 일반적으로 인지지도는 관성(inertia)를 가지고 있으며, 쉽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Bogner and Barr, 2000)인지지도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고체계를 변화시키는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사고체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서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justice)을 수반한 사고도구 또는 의식형성(sense-making)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Eden, 1992a; Weick, 1990), 연성운용연구가 전략형성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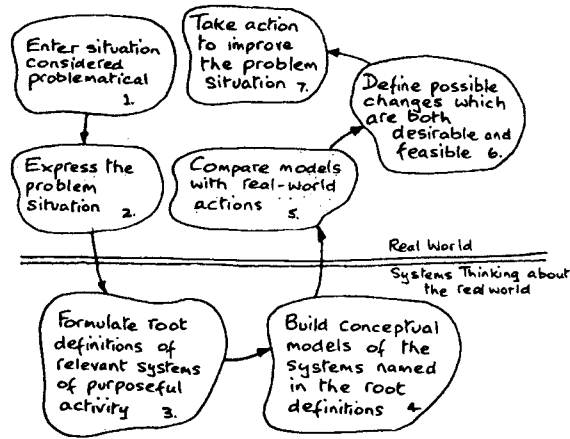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우선 인지변화의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연성운용연구기법들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전략적 대안개발분석(SODA)가 어떻게 전략형성을 위한 경영인지 변화도구로서 직접적으로 활용가능한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연성운용연구의 인지변화도구로서의 속성

큰 범주로 보아 연성운용연구에 포함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인지변화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연구자들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시스템다이내믹스의 모델링과정은 원래 정량적인 시뮬레이션을 목표로 구성되지만,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통해 직관에 반하는 결과를 경영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비선형성과 복잡성을 경영자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Sterman, 2000), 더 나아가 경영자들의 사고모델에 결여되어 있는 인과관계를 깨닫게 하는, 즉 인지지도의 변화도구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Morecroft, 2004)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의사결정자들이 집단적으로 모델을 작성하도록 하는 이른바 그룹모델구축방법론이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정량적인 시뮬레이션을 목표로 하지 않고, 경영인지변화를 목적으로 인과지도의 작성 작업만을 시도하는 이른바 정성시스템다이내믹스(qualitative system dynamics)의 활용도 자주 보고되고 있다(Coyle, 2000; Lane, 1992).

세계적인 석유기업인 셸(Shell)의 경영기법으로 잘 알려진 시나리오기반 계획법(Scenario-based planning)분야 역시 결과물로 작성된 시나리오 그 자체보다, 시나리오의 작성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영자들의 mental model이 훨씬 더 중요한 결과물(Grant 2005)이라고 이해되고 있으며, 셸의 경영전략수립을 장기간 담당해온 van der Heijden(2005)은 시나리오기반계획법은 본질적으로 조직학습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시나리오 기반 계획법이 정량적인 결과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영자들의 인지변화가 부산물(그러나 결코 덜 중요하지 않은)로서 얻어지는 방법이라면, 연성경영계획법은 반대로 얻어진 결과물 그 자체보다 사고의 과정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림 1> 연성체제론의 접근절차도 (Checkland 2001에서 인용)

연성운용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연성체제론(Soft System Methodology)은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현실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깊숙한 실제와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사고방식을 경영자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연성체제론은 그런 의미에서 문제풀이방법론이 아니라 문제구조화 사고체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성체제론은 특별히 강성운용연구에서처럼 숙련된 모델링전문가가 모델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대신 참여자들이 연성체제론에서 제공하는 일정한(그러나 유연한) 사고과정 및 모델링틀³⁾ (CATWOE 및 RD)을 활용한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사고를 변화시켜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Pidd(2004a, 2004b)는 연성체제론이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Justice)을 확보하는 방법론이라고 논증한 바 있다. 절차적 합리성은 실제적 합리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한된 합리성을 확장하여 나가는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이며, 이와 같은 합리성의 확장은 곧 기존의 사고모델 및 인지지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연성체제론인 전략형성의 도구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연성운용연구이론인 드라마이론 역시 전략형성의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드라마이론은 게임이론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는데(Howard, 1993), 고전적인 게임이론이 게임 참여자들이 같은 정보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데 비해, 소위 하이퍼게임(Hypergame), 혹은 불완전정보 게임이론에서는 게임의 참여자들이 게임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고 가정한다.

3) 문제정의틀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Checkland(2001) 참고.

드라마이론은 이와 같은 하이퍼 게임을 다단계로 진행하는 과정을 문제 구조화방법론으로 발전시킨 이론이다. 즉, 앞 단계의 게임결과가 다음단계의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지속되면서, 게임의 참여자들이 서로 충돌하고(이 이론이 때때로 대립 confrontation이론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마침내 게임에 대한 공유된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이 과정 역시 참여자들의 사고틀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며, 기존의 인지 틀을 변화시킨다고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2.2. SODA : 인지지도변화의 직접적 방법론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연성운용연구 가운데에서 적어도 4가지-시스템 다이내믹스, 시나리오기반 계획법, 연성체제론, 드라마이론-의 방법론은 경영자의 인지변화를 그 부수적인 혹은 직접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연성운용연구의 방법론 가운데에는 인지지도의 작성 및 변화를 그 직접적인 방법론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략대안개발분석(SODA)방법론이 있다.

SODA는 주로 Eden등(1998)에 의해 개발된 방법론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들 개발자들이 이 방법론의 심리학적 근거로 Kelly(1955)의 구성이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 이론은 인지학파의 주요한 논거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SODA에서는 전체의 과정을 이끌어나가는 전문가(Facilitator)의 역할이 다른 연성운용연구방법론들에 비해 특별히 더 강조된다. 전문가는 우선, 주요 의사결정자들과 개별적인 인터뷰를 통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지도를 작성한다. 이 과정은 조직 전체의 인지지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초자료이며, 동시에 향후 이어질 집단토의에서 참여를 더 독려하거나, 지나친 독주를 경계할 대상을 파악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두 번째 단계는 주요의사결정자들을 최대한 참여시킨 워크샵을 통해 조직차원의 인지지도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개인의 인지지도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자유로운 탐색을 허용하여 인지지도의 공유를 그 중심목적으로 놓는다. 최근에는 Decision Explorer라는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그룹차원의 인지지도작성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접착식 메모지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법(OMT: Oval Mapping Technique)으로 진행하여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워크샵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 하나는 실제로 인지지도를 작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지지도의 작성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자 그룹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인지지도에 따른 행동결의를 확보하는 것이다. 사실 Eden등은 인지지도(cognitive map)이라는 용어를 인지가 투사된 지도라기보다는 인지를 변화시키기 위한 지도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Doyle, 1999)되

고 있다는 점에서 이방법론의 지향점을 짐작할 수 있다.

SODA가 전략형성의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인지학과의 연구흐름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학과에는 두 가지 관점이 병존하고 있다(Hodgkinson, 2005). 그 하나는 주로 카네기 학과, 즉 행동 전략학 및 실험인지심리학의 연구결과에 그 근간을 두고, 인지에 대한 기능적, 계산적 접근방법을 선호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인지과학, 즉 신경생리학, 컴퓨터과학, 실험 심리학 등의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발전해나가고 있다. 다른 한 축은 사회인지 심리학에서 출발한 관점으로서, Weick(1990,1995)에 의하여 대표되고 있으며, 실행연구(action research)의 기법을 흔히 사용하기도 한다. Walsh(1995)는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인간 혹은 조직이 과거의 유사한 경험으로부터 인지를 형성하는가 아니면 현재의 정보맥락으로부터 인지를 형성하는가 하는 입장의 차이라고 특징짓기도 하였다. SODA는 후자의 관점에 보다 부합하는 방법론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SODA는 인지지도의 작성과정에서 과거의 경험과 행태와 인지지도를 비교하기보다는 각 개인의 세계관(world-view)이 충돌하여 형성되는 인지지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기업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실재론적이라기보다는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주관론, 혹은 해석론적인 관점이며 사회심리학자들이 흔히 취하고 있는 사회구성주의의 경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관점이야말로 Weick을 중심으로 한 주관론 적 인지 전략학과의 인식론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한 기업이 형성하는 전략이 그 기업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자들의 집합적으로 보유한 인지지도, 혹은 인지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인지학과의 가정이 유효하다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보다 명확하게 노출시켜 건설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집합적 인지지도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전략형성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며, SODA야말로 가장 적절한 전략형성의 도구가 될 것이다.

III. 인식론적 문제

연성운용연구와 강성운용연구를 대상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방법이 개념적(혹은 정성적)이나 아니면 수학적(혹은 정량적)이나 하는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손쉬운 일이다. 사실 연성이라고 하는 명칭이 이러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매우 피상적일 뿐 아니라 개념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흐름을 보다 분명하게 구분 지어주는 것은 접근방법이 가지고 있는 인식

론적인 차이이다.

강성운동연구는 데카르트에 의해 시발되고 콩트와 베이컨 등에 의해 확립된 실증주의(positivism)의 패러다임위에 굳건하게 기반하고 있다. 주변의 환경과, 문제, 목적들이 모두 실측가능한 객관적인 변량이며, 연구자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실재론적 인식은 연구방법론으로서 가설의 검정이라는 실증적인 방법론을 정당화해주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연성 운동연구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현실은 각 개인의 지각(perception)을 통해 구축된다는 구성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러한 해석주의(interpretivism)의 인식론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시스템이 객관적으로 관측될 수 있다는 듀크하임(Durkheim)이래의 실증주의 사회학을 인정할 수 없도록 하며, 따라서 연구방법론으로서 가설의 검정이 아니라, 연구자 스스로의 엄밀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토대로 하는 귀납적 접근방법을 채택하도록 한다. 이러한 해석주의 적 입장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민속학이나 인류학의 입장에서 경영학에 접근하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론적인 차이는 결과적으로, 연성운동연구의 연구와 기존의 전략연구가 인지와의 일정한 거리를 형성하도록 한다. 해석학적인 관점에서는 대량의 변수를 통한 검증이나 다량의 사례연구를 통한 일반화가 갖는 의미가 매우 낮기 때문에, 연성 운동연구의 연구자들은 실행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연성운동연구의 성과와 기존의 전략연구문헌들과의 평면적인 비교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20 여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연성운동연구의 연구 성과가 운동연구학계 내부에서도 여전히 작은 목소리에 불과한 것도 역시 이와 같은 인식론과 연구방법론의 본질적인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기한 연성운동연구, 특히 SODA의 전략형성방법론으로서의 실증적 검증 과정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 매우 이질적인 인식론을 결합하는 지난한 작업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식론과 연구방법론에 있어 절대로 결합될 수 없을 것 같던 실증주의와 해석주의의 대립이 Feyerabend(1975)와 Bhaskar(1975) 이후로 결합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인식론적 불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략형성을 이해하는 인지적 접근방법과 연성운동연구의 방법론이 가진 공통점을 분석하고, 연성운동연구의 방법론, 특히 SODA가 전략형성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을 제안하였다.

현재 전략가들과 경영 자문기업들에 의해 주장되는 것처럼 전략이 특별한 전문가가 엄밀한 분석을 통해 기업에게 '제공'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오직 기업의 조직원들은 그 전략을 실행하는 주체일 뿐이라면 수많은 기업들이 겪는 전략적 시행착오는 설명되기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 어떤 전략도 경영진의 인지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인지학과의 설명은 이런 관점에서 보다 전략의 형성과정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설명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유럽의 학계에서 문제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한 연성운용연구는 전략에 대한 이와 같은 인지적 설명에 매우 부합하는 일련의 문제접근도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향후, 연성운용연구가 기반하고 있는 해석적 인식론의 생경함이 연성운용연구의 전략도구로서의 확장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이론적 대립이 아니라, 실천적인 관점에서 해결해나가는 창의적인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Ackoff, R. L.(1979), "The Future of Operational Research is Past",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Society*, Vol.30, No.2, pp.93-104.
- Axelrod, R. M.(1984),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1st edn, Basic Books, New York.
- Beer, S.(1985), *Designing the System for Organizations*, Chichester, Wiley.
- Bhaskar, R. A.(1975), *A Realist Theory of Science*, Verson, London.
- Bogner, W. C. & Barr, P. S.(2000), "Making Sense in Hypercompetitive Environments: A Cognitive Explanation for the Persistence of High Velocity Competition", *Organization Science*, Vol.11, No.2, pp.212-226.
- Checkland, P.(2001), "Soft Systems Methodology", *Rational Analysis for a Problematic World Revisited*, edited by J. Rosenhead & J. Mingers, 2nd edn, Wiley, Chichester, pp.61-90.
- Coyle, G.(2000), "Qualitative and Quantitive Modelling in System Dynamics: Some Research Questions", *System Dynamics Review*, Vol.16, No.3, pp. 225-243.
- Doyle, J. K. & Ford, D. N.(1999), "Mental models concepts revisited: some clarifications and a reply to Lane", *System Dynamics Review*, Vol.15, No.4, pp.411-415.
- Dyson, R. G.(2000), "Strategy, performance and operational research", *Journal of the Operational Research Society*, Vol.51, No.1, pp.5.
- Eden, C.(1992a), "A Framework for Thinking About Group Decision Support Systems(GDSS)", *Group Decision and Negotiation*, Vol.1, pp.199-218.
- Eden, C.(1992b), "Strategy Development as a Social Process", *Journal of Managment Studies*, Vol.29, No.6, pp.799-811.
- Eden, C. & Ackermann, F.(1998), *Making Strategy ; The Journey of Strategic Management*, 1st edn, Sage Publishing, London.
- Eisenhardt, K. M. & Zbaracki, M. J.(1992), "Strategic Decision Making",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13, No.winter, pp.17-37.
- Fahey, L. & Narayanan, V. K.(1989), "Linking Changes in Revealed Causal Maps

- and Environmental Change: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Vol.26, No.4, pp.361.
- Feyerabend, P.(1975), *Against Method*, London, New Left Books.
- Friend, J. & Hickling, A.(1987), *Planning Under Pressure: the strategic choice approach*, Oxford, Pergamon.
- Grant, R.(2005), *Contemporary Strategy Analysis*, 5th edn, Blackwell Publishing, Oxford.
- Heracleous, L.(2003), *Strategy and Organization*, 1st ed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Hodgkinson, G.(2005), *Images of Competitive Space*, 1st edn, Palgrave Macmillan, Hampshire.
- Hodgkinson, G. and Sparrow, P.(2002), *The competent organization*, 1st edn, Open University Press, Buckingham.
- Howard, N.(1999), *Confrontation Analysis: how to win operations other than war*, Washington, DC, CCRP.
- Howard, N., Bennett, P., Bryant, J. & Bradley, M.(1993), "Manifesto for a Theory of drama and Irrational Choice",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Society*, Vol.44, pp.99-103.
- Jackson, M.(2000), *Systems Approaches to Management*, 2nd edn, Kluwer, New York.
- Kelly, G. A.(1955),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1st edn, Norton, NewYork.
- Lane, D. C.(1992), "Modelling as Learning: A consultancy methodology for enhancing learning in management team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Vol.59, No.1, pp.64-84.
- Lane, D. C. & Oliva, R.(1998), "The greater whole: Towards a synthesis of system dynamics and soft systems methodology",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Vol.107, No.1, pp.214-235.
- Mason, J. & Mitroff, I.(1981), *Challenging Strategic Planning Assumptions: theory, cases and techniques*, New York, Wiley.
- Mintzberg, H. et al(1998), *Strategy Safari*, FT Prentice Hall, London.
- Mintzberg, H.(1994), *The Rise and Fall of Strategy Planning*, Prentice Hall Europe, Hemel Hempstead.
- Morecraft, J.(2004), "Mental Models and Learning in System Dynamics Practice"

- in *Systems Modelling: Theory and Practice*, edited by M. Pidd, Wiley, Chichester, pp.101–126.
- Pidd, M.(2004a), "Contemporary OR/MS in Strategy Development and Policy Making: Some Reflections",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Society*, Vol. 55, pp.791–800.
- Pidd, M.(2004b), "Complementarity in System Modelling" in *Systems Modelling: Theory and Practice*, edited by M. Pidd, Wiley, Chichester, pp.1–20.
- Rosenhead, J. & Mingers, J.(2001), "A New Paradigm of Analysis" in *Rational Analysis for a Problematic World Revisited*, edited by J. Rosenhead & J. Mingers, Wiley, Chichester, pp.1–19.
- Schwenk, C. R.(1995), "Strategic Decision Making", *Journal of Management*, Vol. 21, No.3, pp.471.
- Simon, H. A.(1992a), "Information Processing in Computer and Man" in *Economics, Bounded Rationality and the Cognitive Revolution*, edited by H. A. Simon, M. Egidi & R. Marris, Edward Elgar Publishing, Hants, pp.76.
- Simon, H. A.(1992b), "Rational Choice and the Structure of the Environment" in *Economics, Bounded Rationality and the Cognitive Revolution*, edited by H. A. Simon, M. Egidi & R. Marris, 1st edn, Edward Elgar Publishing, Hants, pp.39.
- Sterman, J. D.(2000), *Business Dynamics: System Thinking and Modeling for a Complex World*, McGraw Hill, Boston.
- Ulrich, W.(1983), *Critical Heuristics of Social Planning*, Bern, Haupt.
- van der Heijden, K.(2005), *Scenarios: The Art of Strategic Conversation*, 2nd edn, John Wiley and Sons, Chichester.
- Walsh, J. P.(1995), "Managerial and Organizational Cognition: Notes from a Trip Down Memory Lane", *Organization Science: A Journal of the Institute of Management Sciences*, Vol.6, No.3, pp.280.
- Weick, K. E.(1995), *Sensemaking in Organizations*, 1st edn, Sage, Thousand Oaks.
- Weick, K. E.(1990), "Cartographic Myths in Organizations" in *Mapping Strategic Thoughts*, ed. A.S. Huff, 1st edn, John Wiley and Sons, Chichester, pp. 1–10.

Application of Soft OR to Strategy Formation: Perspectives and Applicability

Kim, Do hyeon*

Abstract

The paper discusses application of soft OR methodologies, which have been developed for last decades centered in European OR communities, to strategy formation process. It is shown that there is strong similarity in understanding of strategy formation between descriptive school of strategy and the research trend of soft OR. The focus and philosophical background of cognitive school of strategy, in particular, share much in common with soft OR school.

The analysis and overview of several soft OR methodologies are introduced. It is also proposed that SODA can be utilized more directly to the strategy formation process. However, it is also noted in this paper that the epistemological issues should be considered and resolved for fluent investigation of soft OR methodologies in relation with existing rich strategic research works, for soft OR adopts interpretative research methods while strategy research generally lies on positivistic approaches.

Keywords: strategy formation, cognitive approach, soft OR, epistemology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